

[ 수필 ]

## ‘대병’아저씨

그해 여름, 어린 소녀였던 나는 집에서 학질이라는 모진 병을 앓고 있었다. 시간을 맞추듯이 주기적으로 덜덜덜 떨며 앓는 그 병은 진짜 사람의 진을 다 빼게 하였다.

아버지가 교장이다 보니 우리 집은 학교 바로 뒤에 있었다. 집 마당이자 학교 뒤마당이고 학교 마당 전체가 눈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다. 그해 여름 따라 장마비는 멈출 줄 모르고 줄창 내렸는데 어느새 강퍽과 논도랑을 밀어갔으며 푸르싱싱 벼파도 넘실거리던 논밭은 물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어느 날인가 홍수방지에 나선 해방군아저씨들이 방학이어서 비어있는 학교에 류숙을 정했다. 해방군아저씨들은 학교 뒤마당에 풍천을 쳐놓고 식당을 만들었다. 먹을 것이 귀하였던 그 시절 반찬을 부는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해방군 식당 근처에 열썬도 못하게 단속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식당 옆을 지나다가 취사원아저씨들이 하얀 밀가루를 밀어서 기름을 조금 두르고 설탕도 조금 넣고는 돌돌돌 말아서 또 다시 밀대로 밀고 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신기해서 한참 보다가 그 떡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다.

[ 산문 ]

## 8 월의 연변에 부쳐

연변의 8월은 한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시작이 만나는 시기이다. 연변은 자연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특히 장백산 천지, 두만강, 해란강, 부르하통하, 모아산은 연변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명소들이다.

장백산 천지는 그 높고 푸른 산봉우리들 사이에 위치한 맑고 깊은 천혜의 호수다. 8월이 되면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천지의 물은 여전히 차디차고 수정같이 맑다. 신비하고 기이한 산봉우리와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동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천지 주변의 풀과 나무들은 아직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지만 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한다.

두만강은 연변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간직하고 있는 강이다. 강안턱을 쳐질씩 두드리면서 흘러가는 8월의 두만강은 여전히 여름의 생명력을 과시한다. 질푸른 강가의 숲

은 서서히 노랗게 변해간다. 두만강은 천리 넘는 물길을 아쉬운 듯 오불꼬불 타래치면서 시원한 파도로, 독특한 강내음으로 여름의 더위를 식혀준다.

해란강은 연변의 아름다운 강으로 여름과 가을의 경계인 8월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맑고 투명한 해란강의 물은 수백리 황금 벼파도를 만들어주는 농부들의 생명수다. 가을이면 해란강이 에도는 화룡의 60리 평강별과 룡정의 세전이별, 곡창지대 벼밭의 황금파도는 주변의 나무숲들과 어우러져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 8월의 해란강은 여전히 여름의 따뜻한 해살을 받아 반짝인다.

부르하통하는 연변의 또 다른 명소이다. 연길시의 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부르하통하 강안에 펼쳐지는 밤 풍경은 한폭의 그림이다. 8월의 부르하통하를 걸으면 물오리와 물고기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강물은 여전히 시원하고 이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한다. 8월의 부르하통하는 가을이 맞이하는 마지막 여름이다.

모아산은 연변의 사계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산이다. 봄과 여름에는 질푸른 숲과 시원한 바람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8월이 되면서부터 그 푸르름 속에 가을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모아산의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직은 여름의 뜨거움이 남아있지만 서서히 변화가는 나무잎의 색깔에서 가을의 도래를 느낄 수 있다.

8월의 무더운은 만물을 익혀주고 그래서 자연은 더 풍성해진다. 들판의 곡물이 점점 익어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풍년의 희망이 넘쳐흐르는 8월의 삼복은 모든 동식물들이 자연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마음껏 분출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신록이 짙게 독을 쓰는 산림 속에서 잎과 가지를 겨루며기로 자랑하면서 서로 다른 품종의 나무들이 키 크기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은근히 하고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해방군아저씨들이 최고였던 그 시절 해방군아저씨를 만나면 우리는 “해방군아저씨,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곤 하였다. 나한테는 더군다나 ‘대병’사건이란 흐뭇한 추억이 있으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렇게 홍수도 물러가고 아저씨들도 돌아가고 가을이 다가왔다. 그 날도 동생을 업고 길가에 서있는데 저 멀리서 해방군아저씨들 대렬이 척척 오고 있었다. ‘저 속에 대병아저씨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내려놓고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꿈만 같았다.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여전한 모습의 아저씨는 나를 보고 그냥 지나면서 손을 힘있게 흔들었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대병’아저씨만 쳐다보았다. “아저씨 반갑습니다.” 인사 한마디 못 올린 채 ‘대병’아저씨는 대오와 함께 점점 멀어져갔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군대아저씨들, 그중에서도 가장 생각나는 ‘대병’아저씨. 소녀의 ‘대병’아저씨는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 스타로 남아있다.

■ 현룡운 (연길)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이름 모를 여러가지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화려한 색깔을 뽐내는 모아산은 숲의 성장지 속의 힘의 경연장이다.

삼복 기간이 무덥지 않으면 가을에 쪽정이만 남는다고 한다. 8월은 푸른 전야와 삼림이 무르익어가고 인간도 익어가는 시기이다. 8월은 성숙한 숙녀의 모습이요, 꽃이 열매로 익어 땅과 키스하는 시기이다.

연변의 8월은 가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제 곧 가을이 되면 장백산 천지, 두만강, 해란강, 부르하통하, 모아산은 또 다른 아름다운 자태를 각기 다른 패션으로 뽐낼 것이다.

연변의 8월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계절의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늙어가지만 담수에서 태어난 해양성 물고기들은 바다로 해염처갈 준비를 하고 이곳에서 태어난 제비들도 강남에 날아갈 비행런습을 하는 8월이다.

[ 시 ]

■전병칠 (연길)

### 그대는 아는가 ( 외 2 수 )

그대는 아는가  
새노랑게 살이 올라  
하늘하늘 줌을 주는 들국화  
활활 타오르던  
누구의 청춘인 줄을

죽어서 눈 감지 못한  
한 사나이 위해  
이곳 사람들 여기에  
다리 하나 세웠네

꽃 하나하나에 앉아있는  
살아숨쉬는 선렬의 이름  
꽃무리 하나하나에서  
수련거리는 항쟁의 이야기

약수동 밤하늘엔  
류달리 별이 많다  
약수동 홍색유람기지들을 찾아서

고운 얼굴 짙은 색재  
슬픔인가 희열인가  
높이 열린 하늘 향해  
방글방글 태양을 굽는 저 향기

무심히 밟을 땅이 아니다  
선렬들의 가슴에서 흐른 피  
발길 아래 흙 속에  
숨배어있을지도 모른다

꽃이라 하기에는  
별처럼 너무 많은 사연  
그대는 아는가  
들국화가 9월에 피는 이유를

나무 하나하나에  
품포기 하나하나에  
쓰러질 줄 모르는 생명이  
눈을 뜨고 앉아있는 것일까

죽어 한몸 백룡이 된 사람  
-왕청현 대흥구진 성룡대교 앞에서

죽어서 눈 감지 못한  
한 사나이 위해  
이곳 사람들 여기에  
다리 하나 세웠네

중국 동북 최초의 인민정권  
약수동 쏘베트정부 설립의  
우렁찬 함성소리  
쩌렁쩌렁

열혈의 청춘을 밀영에 바쳐  
총칼을 뽑아들고 유격전 벌리며  
왜적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신출귀몰의 항일장령 량성룡

일본령사분관 습격하자  
장인가방에 매아리치던  
농민적위대 대원들의  
발구름소리 발구름소리

달 없는 깊은 밤이라도  
바지가랭이 적시지 말고  
쉽게 하서촌  
옛 집터를 찾아오라고  
다리 우에 환하게  
전등불까지 켜놓았네

동방의 해돋이를 향해  
이곳 사람들 항쟁의 불길 지퍼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  
질펀한 서사시를 엮었다

죽어 한몸 백룡이 된 사람  
이승과 저승을 이어놓으며  
일년 사계절 주절주절  
이 땅의 어제와 오늘을  
세상에 알리네

신춘, 김순희, 정태경…  
살아숨쉬는 불사조 명령들  
하나둘 하늘에 올라  
별이 되었을가  
약수동의 밤하늘은  
류달리 별이 많았다



■ 남철 (연길)

## 《항일장령 왕덕태》를 창작하던 나날

동북항일련군 제2군 군장직을 맡고 동만에서 일본군과 피어난 전투를 벌였던 왕덕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방송드라마를 창작하기로 하고 2015년부터 자료 수집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현지답사 길에 올랐다.

왕덕태의 자료는 인터넷과 동북항일련군의 업적을 다룬 서적들에서 수집하다가 2017년에 인터넷을 통해 주광계 (朱宏启)가 쓴 《왕덕태전》을 구매했다. 이 책은 왕덕태의 출생으로부터 어린시절, 단둥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연변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 진보적 사상을 접수하고 혁명의 길에 들어선 그의 일대기를 상세히 기술했다.

왕덕태의 고향을 찾은 것은 2021년 9월이었다. 그해는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신문출판총국에서 각 소수민족의 100개 촌을 영상 프로로 제작하는 공정을 시작했다. 필자가 그 항목의 문자편집으로 선임되어 중국 조선족 산재지역 마을을 취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차례졌다.

왕덕태의 고향은 료녕성 대석교시 (영구시 소속) 박락포진 첨가툰인데 대석교시에 조선족 마을인 수원진 신평조선족촌이 있었다. 그때는

[ 창작담 ]

이미 방송드라마로 각색된 〈왕덕태장군〉(2021년 5월부터 방송, 매회 20분 길이로 총 55회)이 연변인민방송국 전파를 타고 방송되던 시기였다. 신평촌은 비록 왕덕태의 고향은 아니었지만 다 같은 대석교시인 지라 길거리의 모습과 래왕하는 사람들을 보면 왕덕태의 형상이 떠올라 왕덕태와 지적에서 만난 듯 친절감이 들었다.

왕덕태가 처음 고향을 멀리 떠나 장사를 해보려고 도착한 곳은 안동, 바로 지금의 단둥시였다. 1926년 봄이였으니 왕덕태 (1907년생)가 19살 때의 일이다. 대도시에 처음 온 데다 사회경험도 없고 장사마련까지 없었으니 실패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왕덕태는 자기보다 두살 이상인 조선족 허성호를 만났다. 둘은 장사를 한담시고 이것저것 해보았으나 번마다 실패하고 밀전을 다 날린다.

필자는 2018년과 2021년에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 제작, 중국 조선족 산재지역 농촌 취재 기회에 단둥시를 다녀왔다. 왕덕태가 단둥에서 장사를 했던 장면을 형상화하기 위해 단동의 아침시장을 여러번 다녀오면서 장사 품목은 물론 장사군들의 얼굴과 싸구려 소리까지 관찰하면서 구상을 무르익혔다.

단둥에서 장사를 접은 왕덕태와 허성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심했다. 하지만 왕덕태는 단둥으로 떠날 때 아버지가 마련해준 장사 밀전을 다 날렸는지라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서지 않아 허성호를 따라 그의 고향인 안도현 차조구에 도착했다.

차조구는 지적에 있다. 안도로 갈 때면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국도를 리용했다. 석문진에 내려 길거리, 살림집과 주변의 경관을 상세히 관찰하곤 했다. 바로 석문진 차조촌에서 왕덕태는 농민협회, 청년동맹, 반제동맹 등 진보적 조직에 가입하여 혁명도리를 깨우쳤고 혁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병운에 성공하여 32명을 토비무리에서 기의시켜 연길현유격대 (후날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탄)에 가입시켰다.

왕덕태의 대부분 항일 업적은 연변에서 이룩한 것이다. 그중 왕우구항일유격근거지는 바로 지금의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과 련화촌, 고성촌 일대인데 일본군과 가렬처절하게 싸웠던 전장이다.

2017년부터 나는 연변의 항일투쟁사와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과 함께 전직지를 많이 답사했는데 그중 왕덕태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한 차수가 가장 많다. 왕우구항일유격근거지에서 일제와 싸웠던 형상을 구상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왕우구항일유격근거지인 연길시 의란진 고성촌을 답사한 후 그 이듬해부터 해마다 고성촌을 다녀왔다. 특히 이곳에서는 수차례의 유격전이 있었기에 고성촌 임구로부터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심지어 바위 하나, 나

무 한그루까지 세심히 관찰했고 폰에다 메모했다. 그런 관찰이 후날극본을 창작할 때 크게 일조했다. 왕덕태는 바로 왕우구항일유격근거지인 의란진 고성촌에서 조선족 처녀와 결혼했다.

일본군의 드센 ‘포위도발’에서 항일력량을 보존하기 위해 왕덕태는 동북항일련군 제2군을 이끌고 처창즈, 대전자 (지금의 안도현 만보진), 내두산으로 전이했다.

2019년부터 나는 답사팀과 함께 이 지역을 답사했는데 내두산촌은 선후로 8차나 다녀왔다. 그중 1935년 5월에 일본군 국제열차를 습격했던 안도현과 돈화시의 경계인 하발령만 해도 5차 답사했다. 내두산에 이어 왕덕태의 발자취는 돈화의 따푸차이허, 한충령과 멀리 북만—흑룡강성 념안의 경박호지대에까지 뻗어간다. 이 지방들도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5차 이상 답사했고 2021년 9월에는 왕덕태의 묘지가 있는 백산시를 답사하였다.

40만자 분량의 방송드라마 〈왕덕태장군〉과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간된 애국주의교양도서 《항일장령 왕덕태》는 자료 수집과 현장답사로 6년의 시간을 들여 창작한 항일렬사전기라고 할 수 있다.